

마을 존폐의 위기를 집락영농으로 넘겼다

-농사조합법인 팜 다무기야마(田麥山)-

니가타(新潟)현 나가오카(長岡)시

2004년 10월23일 니가타(新潟)현 구 가와구치(川口)町(현재 나가오카(長岡)시 가와구치(川口)정)을 진원지로 하는 최대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지에서 그리 멀지않은 가와구치(川口)정, 다무기야마(田麥山)집락(약90호)은, 산에 둘러싸인 작은 전답이 있는 한가로운 마을이었다. 그러나 일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논밭은 갈라지고, 논두렁은 무너지고, 농로나 수도도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주택 90% 이상이 무너지거나 피해를 보았다.

집락의 평균경작면적은 겨우 자급하는 정도로 작고, 농가의 90%가 2종 겸업농가이다. 고령화가 진행되어 농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다무기야마(田麥山)에는 모든 눈에 벼가 자라고 있어 마치 예전부터 쭉 보았던 풍경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복구작업속에서 집락 내에 공동의식에 대한 싹이 띄게 되어 새로운 진화가 시작되었다.

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70대 고령의 양친과 벼를 재배하고 있는 와타나베(渡辺)씨(46세)는, 지진당일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저녁 6시경에 커

다란 소리와 함께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전기가 나갔다.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벽이 무너지는 소리와 천정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일어날 수도 없었다. “아들이 위험하다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기어서 가까이 가보니 식탁 밑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모친은 쓰러진 찬장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외출한 부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은 새벽 1시가 지나서이다. 7명의 가족이 모두 무사하였지만, 계속되는 여진으로 집은 엉망이 되었다. 그날 밤은 이웃과 함께 게이트볼장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노숙을 하였다.

그 후 1주일간은 와타나베(渡辺)씨는 소방사(구급구조대)로서 사상자의 응급대응이나 지역전체의 피해상황 확인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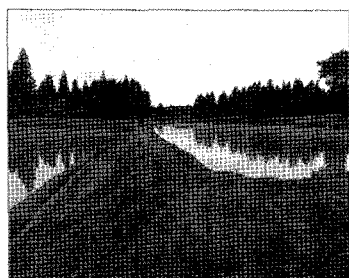


▲ 와타나베씨 작업장고는 이전 지면이 손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진으로 1m 정도 무너졌다.

동분서주하였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무기야마(田麩山)에 고다카(小高)라는 마을이 있는데 전 부락민이 집 단이주를 결정하였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불안하겠지만,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다무기야마를 떠나는 것이다. 피난소에서도 ‘그을린 집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후 다무기야마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한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 지진으로 논둑이 무너졌던 와타나베씨의 논

남아 있는 많은 주민들은 초등학교에서 피난생활을 하였다. 지진 후 2개월 정도 지난 12월 중순에 가설

주택이 완성되었다. 19년만의 대설 직전이었다.

「자신들의 농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가설주택에 입주하고 부터이다. 그때까지는 그 날그날의 일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다.」

내년에 벼를 심을 수 있는 논을 어떻게라도 정상화시키고 싶은 와타나베씨, 그러나 지진으로 창고가 무너져 이앙기 등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인근 농가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앙기나 트랙터 등은 약간 손을 보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와타나베씨는 건조기가 무사하였다. 이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협의를 통하여 내년 농사시기에 맞추어 3인이 공동으로 창고를 짓기로 하였다.

집락모두의 법인을 만들자.

당시 지역농협에 근무하면서 논농사를 하던 와쿠이(涌井)씨(61세)는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하는 농업지원팀의 멤버로서, 논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도 많았다. 농기계는 와타나베씨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농기계를 전부 마련하려면 약 1천만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 집락에서는 농가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집락전체가 법인화하여 농작업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와쿠이씨는 생각하였다. 2007년부터는 경영소득안정대책도 시작된다. 핵심농으로서 면적을 집적하면 그 대상이 된다.

와쿠이(涌井)씨는 와타나베(渡辺)씨와 3농가에 “그렇다면 모두가 법인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을 걸었다. 3농가는 이미 목공소에 부탁하여 공동작업장의 설계도까지 준비하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와쿠이씨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지역의 장래를 생각하면 확실히 법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 후, 법인설립을 위해 와쿠이씨는 설문지를 만들어 가설주택에 회람판을 돌리고 가설주택의 집회소를 거점으로 하여 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다.

모든 겸업농가의 법인이 탄생

그러나 법인화라는 단어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법인화하면 자신의 쌀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논에서 생산한 쌀도 법인의 물건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농가가 자신이 소비하는 쌀을 매입하는 것은 농가가 아니다” “자식들이나 친척에게 자신이 생산한 쌀을 보내주는 것



▲ 팜 다무기야마의 대표인 와쿠이씨, 조합원 소유의 중고 콤바인

이 즐거움인데 법인화하여 다른 농가의 쌀과 섞이는 것은 싫다”라는 농가도 있었다.

와쿠이씨는 모두가 합

계하는 의미를 열심히 설명하였지만, 좀처럼 이해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농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농가도 있었다. 집락의 현황과 장래를 생각하면 역시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찬성하는 농가들과 협의를 하여 처음 말이 나온 때부터 반년에 걸쳐 2006년 2월, 구성원 23농가의 농사조합법인, 팜다무기야마(田麥山)가 탄생하였다. 멤버는 모두가 겸업농가로 지도자급인 핵심농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인은 당시 어떤 지역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결단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때 추진하지 않았다면 요원했을 것이다”고 와쿠이씨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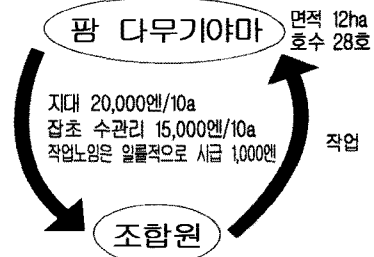
법인설립의 사무적인 수속은 간단하였지만, 출자금을 결정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다. 주택을 수리도 해야 되고 해서, 한 농가당 약 5만엔(1만엔+면적비율)으로 하여 함께 120만엔이 출자되

었다. 와쿠이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몇 번이고 계산을 하였다. 적자로 시작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절약을 하기 위해 농기계를 새로운 것을 사지 않고, 조합원이



▲ 팜 다무기야마의 작업장

팜 다무기야마의 개요



주요 판로

수량 : 800표(고시히카리)

농협 : 200표
생협 : 200표
자신들이 구입하는 량(400표)

소유하고 있는 중고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농협에는 그해의 농약대금이나 비료대금을 가을 수확기까지 연기를 요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봄에 작부가 가능한 9ha의 농지에 벼를 심었다.

봉사원을 만나고부터 판로를 개척

「이 법인이 시작되었을 때는, 좋은 의미에서 나 나쁜 의미에서나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다.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멤버로 참가한 와타나베씨는 말하였다. 좋은 의미라는 것은, 영농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법인에 참가하는 것으로 농지를 황폐화 시키지 않고 농지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쁜 의미는 다무기야마(田麥山)에서는 공동협업이 잘된 선례가 없다는 전해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 양잠이 번성하였을 때, 협업조합이 몇 개 설립된 적이 있었다.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설비투자를 하였지만, 많은 자금의 사용방법이 잘못되어 도산하였다. 막대한 차입금만 남이 변제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픈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과 시선 속에서 팜 다무기야마의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쌀 판매처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지진 후, 아이찌(愛知)에서 봉

사원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맛있는 쌀에 반하여 아이찌의 생협을 소개해 주었다. 그것이 그 후, 다무기야마에서 생산한 쌀을 아이찌 사람들이 소비하고 응원하는 교류로 연결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법인설립 후, 5년 반이 지난 지금 경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법인의 활동을 보고 새롭게 참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28농가, 정작면적은 12ha로 늘었다.

비농가도 즐겁게 참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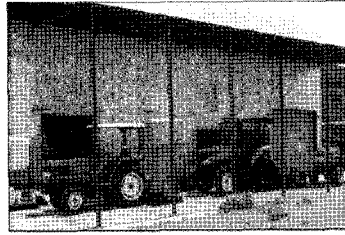
와쿠이씨는, 법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농작업에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가에서 영농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작업일당도 정확히 지급하고 있다.

법인멤버 중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농지를 소작을 주어 농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른바 농지를 가진 비농가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법인에 참가한 지금은, 즐겁게 이양이나 벼 베기 등 공동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에 와쿠이씨는 즐거워하고 있다.

「이러한 산속의 마을에서도 모두가 겸업농가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라고 해도 모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진 때에도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견이 나와, 채소를 심어 충실히 재배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다.」

자신들의 어린이세대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와타나베씨는 법인이 설립된 후, 세대를 초월하여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



▲ 복구기금 등을 활용하여 구입한 3대의 트랙터

게 된 것에 놀라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자식세대인 20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년 봄 모내기작업의 분담표에는 20대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가 법인 멤버의 자식들로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대학의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아르바이트 대신에 도움을 주기위해 온 것이다.

「설마, 어릴 때 야구를 가르치던 어린이들과 함께 영농작업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20세가 넘고부터는 자신들의 자식들과 그다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모를 잘 심는구나” “저 논은 토질이 어떠니 어떠한 농기계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젊은이들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훌륭한 영농지도자가 된 젊은이도 생겼다. 세대를 초월하여 같은 목표를 향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집락의 버팀목으로서 법인은 안심이 된다.

법인에는 참여하지 않는 마을주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정년을 맞이하여 지금부터 시작이 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퇴직금이 있어서 법인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신이 영농을 시작하였다. 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식도 농업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주위 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마을에 법인이 있다면, 곤란

한 일이 생겼을 때 버팀목이 되어 줄지도 모른다. 자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중가할 것이기 때문에 든든한 생각이 든다.”

지진으로 잃은 것은 많지만,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을 얻는 계기도 되었다.

팜 다무기야마는 지진 때문에 생긴 법인이라고 해도 좋다. 법인의 일을 보면서 복구를 하던 와타나베씨는 지진으로 잃은 것도 많지만, 대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봉사를 이해 한결음에 달려온 사람들과의 만남의 즐거움이고, 지역 내에서 세대를 초월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지역의 풍부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봉사원들은 “여기는 매우 좋은 곳이다. 산이 있고 좋은 물이 있고 좋은 공기, 그리고 맛있는 쌀이 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연의 풍

부함이 있다. 도시에는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었다.

그러한 말을 듣고 와타나베씨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지역에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물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여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나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저산에 취수지가 있다, 그곳이 좋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취수지에서 끌어오면 된다”라고 알려주었다. 선배들이 구축한 이 마을에서 생활하는 지혜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보다 더 다무기야마가 좋아졌다.

「우리지역은 인적피해는 없었고 쓰나미나 원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3.11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의욕을 갖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¹⁰⁾

(편집자 주: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11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협회와 회보발간을 위하여 1년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1394-01-0005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세요. 02-794-7270)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정(연)회원 일 경우, 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동심회비 : 100,000원입니다.
본회의 회원은 통일회원, 동심(평생)회원, 정(연)회원으로